



Crack Tooth Syndrome의 처치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 교실 교수 홍찬의

학
술

Crack Tooth Syndrome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부분 치수 질환으로 이행되거나 수직파절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간혹 치수염증 없이 장기간 증상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진단: 대개 딱딱한 음식을 씹은 다음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환자의 기왕력에 대한 문진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교합면을 깨끗이 세마한

다음 crack line이 육안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crack line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염색소를 사용하여 확인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 및 부위에 타진을 하거나, Wood stick 혹은 rubber 조각을 씹게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crack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crack이 crack으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완전한 수직파절이나 치아가 양분되었는지 explorer나 pincette으로 움직여 봅니다. 만약 치아가 수직파절되어 양분되었다면 발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치법: 최종적인 치료법은 full coverage이나 치수염 유무에 따라 근관치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수염 유무는 환자의 자발통 유무 및 생활치수 검사법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또한 치수염 초기에는 이 방법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경우의 적절한 처치법은 crown preparation 후 temporary resin crown을 한동안 장착시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환자의 증상이 소실되었다면 근관치료는 필요치 않으며 permanent crown을 제작하면 됩니다. Temporary resin crown을 제작시 주의할 점은 margin

Q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저작시나 음료수를 마실 때 경도에서 증정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적절한 진단 및 처치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을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crown margin이 정확치 않으면 환자의 증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Temporary crown 장착후에도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수가 괴사된 경우는 근관치료를 해야하며,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근관와동형성, 근관형성 또는 근관충전 과정중에 치아의 파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관치료 전에 copper band나 교정용 band

로 치아를 감싸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bur도 새 것을 사용하여 치질삭제시 충격을 가능한 줄여주어야 합니다. 근관형성도 해당 근관은 가능한 작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관충전시 측방가압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치질파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보다 작은 가압과 적은 accessory cone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방법보다는 single cone/Ketac-Endo sealer 법이나 injection gutta-percha법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후 permanent crown을 제작해주면 됩니다.

3. 예 후: 근관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근관치료시 근관내에서 삼출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예후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근관치료시 근관내에서 지속적인 삼출물이 보이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는 근관내의 원인이 없다면 이미 crack line이 치근부까지 파급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channel을 통하여 외부의 자극원이 지속적으로 근관내로 침투하기 때문이므로 예후는 불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림 1-가, 약 1년동안 저작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crown prep 후 crack line이 보임.



그림 1-나, Temporary resin crown 장착후 증상 사라짐.



그림 1-다, 3개월후 gold crown setting : 증상없음.



그림 2-가, 1개월간 저작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근관내로 crack line이 보임.



그림 2-나, 근관치료후 증상소실됨. 근관충전 및 gold crown 장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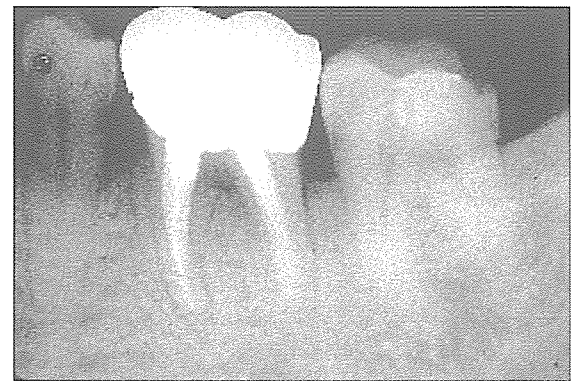


그림 2-다, 3년후 방사선사진으로 정상상태를 보임.